

사설

부처님 오신 뜻은 자비실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진리의 소식을 열어 보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 속에 살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법화경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부처님을 대신해 길잡이 역할을 하는 법사가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자리에 앉아 여래의 웃을 입고' 법을 설하라고 부처님은 강조하신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래의 방은 바로 자비를 뜻하는 것이다. 아무리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게 하려는 마음 즉 자비심이 밑거름에 깔린 것이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북이 말라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오열된 물을 소개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를 해롭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즉 자비심이 전제되어야만 '여래의 자리에 앉아 여래의 웃을 입고' 설하는 법이

중생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제 한달여 있으면 인류의 성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그 의미를 길이 기리는 뜻에서 온갖 종류의 연등을 만들어 부처님전과 어두운 곳을 밝힌다. 늘 강조해왔듯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중생을 자신의 친아들 위하듯 하는 자비심이 있어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축연등도 자비의 등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불교 1번지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각 사찰, 우리는 선우, 재가연대 등 수행단체에서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자비의 연등 달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와 가족을 넘어 더 큰 범위의 축복을 위한 등 켜기를 통한 보살행 실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 동양의 등, 상생 화합의 등, 환경보존의 등, 자비의 등, 불국 지하철 연등... 여러 의미의 연등이 사회 곳곳에 피어나 자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 우리 겨레는 한층이 커다란 통일의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조선불교연구소 발족 의미

한국불교는 16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흔히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융성과 발전을 강조하고 조선시대의 암울했던 역사를 지적한다. 부당한 억압으로 인해서 조선시대 불교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불교는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여전히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불교 연구는 너무나 초라하다. 관심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 기초자료도 정리되지 않았다. 70년 전의 연구 성과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불교는 억불책에 의한 압박으로 발전하지 못한 불교라는 선입관이 작용하고, 또한 여러 자료를 수집·정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한국불교의 모습을 형성시켰던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부진은 한국불교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흔히 억불승유로 설명되는 조선시대 불교사에 대한 막연한 이해는 불교계에 피해의식이나 배타의식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조선시대 불교사의 정당한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문헌적 역사를 찾고 새롭게 조명해야 하며,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기억을 상실한 집단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런데 대문사에서는 조선불교연구소 설립을 기쁘게 환영하고 황무지로 남아있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고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다. 서산대사의 의발을 전수한 대문사는 조선후기의 그 어렵던 상황에서도 법등을 환하게 밝혔던 도량이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대문사의 조선불교연구소 설립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다.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외국인 포교 본격화

조계종 외국인 사찰안내연합회 창립

제등행진 초청... 中日語 교육 확대

2002년 월드컵을 비롯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조계종 포교원은 외국인포교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은 외국인포교를 위한 전국 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연합회를 4월 중순 창립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도 연등축제 행사에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하여 제등행진의 의미와 역사,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교계의 외국인 포교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8일 오후 2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현재 외국인 사찰 안내팀이 결성된 조계사

봉은사 불교사 동도사와 결성 가능한 송광사 동화사 한마음선원 등 7개 사찰 외국인 안내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국 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연합회를 결성한 뒤 광역시도 단위별 1개사찰에 외국인 안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원은 또 외국인 안내를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찰안내책자 2권을 4월 말까지 발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전국외국인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연합회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4월 29일 제등행진

행사에 맞춰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 제등행진의 의미와 역사를 알리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8군 군악대 초청연주 프로그램도 마련,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연등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포교원 황흥기 주임은 "사찰안내뿐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영어 사찰안내교육을 확대하여 중국어와 일어 사찰안내자원봉사자교육도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어 일어 사찰안내 자원봉사 희망자는 4월 3일까지 포교원에 교육희망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7일 간단한 자격심사를 거쳐 14일부터 3달간 교육을 받게 된다. 문의 02) 720-7062.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교육·포교원장 선출 연기

조계종 임시총회 폐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는)는 20일 150회 임시총회를 열어 중헌 특위 동국학원 조사 특위 위원 보선, 원로의원 추천 등 11개 안건을 처리하고 23일 폐회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선출,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등의 중헌 개정의 건 등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련특위 위원 정각스님 보선 △동국학원 조사특위 위원 범종스님 보선 △원로의원 원담스님 추천

△불기 2544(2001)년 중앙총무기관 세출결산액 146억4099만원 승인.

총회는 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가야산 순환관광도로 개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반대 보선, 원로의원 추천 등 11개 안건을 처리하고 23일 폐회했다.

총회는 조계사신협 금융사고와 관련, 법적책임을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판단키로 하고, 도덕적 책임은 중헌·총법에 의해 이사장의 문책을 요구하되 정상을 잠차키로 했다. 조계사신협특위는 이날 해체됐다. 정성운 기자



부속 일산병원 불교종환

'자비인술' 일산병원 상량

공정 40%...내년말 개원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3월 20일 오후 2시 고양시 식사동 병원 건립 부지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환)의 상량식(사건)을 봉행했다. 상량식은 영상대로 시작해 오후 2

시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석주스님(원로부사 조실), 도원스님(조계종 원로회 부의장, 송석구(동국대 총장), 권노갑(동국대 총동창회장) 등 7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2002년 하반기에 개원할 일산병원은 총 3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고영배 기자

조계종 신도교육 잇달아

31일~4월8일 지역별 개최

조계종 신도교육이 활발하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31일 오후 2시 화성 용수사와 오후 3시 조계사에서 경기관방, 서울 1지역(종로 서대문구 마포 은평구)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또 4월 1일 오후 3시에는 도선사에서 제 2지역(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노원 강북 도봉구), 7일에는 봉은사에서 제 3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8일에는 법안정사에서 제 4지역(동작 관악 영등포)을 개정하고 2001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한명우기자

개최한다. 연수회에서는 '5계운동의 의의와 내용' '지역사회활동 사례발표' '실천의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예불·독경 등 의식교육

서·경 포교사단, 한달간

조계종 서울, 경기포교사단은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규포교사를 대상으로 불교의식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포교원 1층 강의실에서 5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의식교육은 인묵스님(불교어산작법학교 교장)을 강사로 진행한다. 김원우기자

종책경쟁등 운영에 활력소

총회에 교섭단체 생긴다면...

총회 내에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하면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처음 열렸다. 21일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부 과위원회 주최로 불교회관에서 열린 '중앙총회 기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심익섭 교수(동국대, 행정학)는 "선의의 종책 경쟁을 위해 국회의 교섭단체처럼 총회 내 4개 친북단체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총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4개의 모임(무통회, 청림회, 일여회, 원운회)을 교섭단체처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활용의 측면에서는 공감대를 표했다. 방청자로 참여한 총회의장 지

대중공의 살려면 유익

이해걸려 활동제약도

하스님은 이와 관련 "보수와 개혁의 갈등과 경쟁 속에 역사는 발전한다"고 전제하고 "총회도 양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하스님은 "불교의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대중공의 정신과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현웅스님과 임종훈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어느 집단이든지 몇 그룹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교섭단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4개 그룹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임종훈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삼임분과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사무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 예산 보좌관제 운영 △입법예고의 상시화를 제안했다. 정성운 기자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천도재 및 勝景地區 結계도량

귀의삼보하옵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6여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이 있는 공덕주의 발원으로 백화점 붕괴 이전 이후의 모든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勝景地區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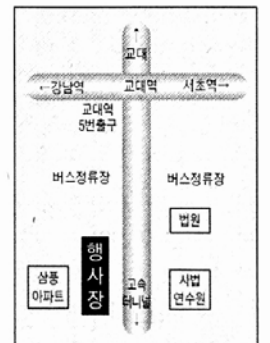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5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구 삼풍백화점 터(행정법원 정문앞)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지리산 화엄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

영가법문 : 청화스님(성륜사 조실)
주 모 사 : 총무원장 정대스님
영 산 재 : 인묵스님

- 증명 : 천운·원명·종국
봉행위원장 :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위원 : 지홍 정락 범장 현해 지명 진허 범장 범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통광 성오 상수 범조 도영 다정 현봉 보선 중원 법현 부림 현고 성월 해자 양산 종지 성국 계성 상운

- 집행위원장 : 화엄사 주지 종걸
위원 : 지하 청화 명진 원행 종림 현각 지현 성관 자승 세영 마근 정남 도완 도공 원담 장곡 진각 지운 선광 범등 범보 유광 혜정 장적 무이 종상 장주 수완 도각 영담 정인 석호 정각 근일 설승 지광 성오 화범 진만 종삼 영조 범종 몽산 월우 중하 탄우 대원 진원 태공 인묵 동욱 지광 현웅 지욱 향적 학담 법안 혜창 정우 영배 여연 정휴 광조 장운 원우 지홍 원명 수현 일법 본각 해주 범성 도문 운달 지형 계호 경륜

행사장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 23호선 고대역 6번출구
버스 : 36.41.78.78-2.212-2명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계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종걸